

# 제 8 장

---

## 문화 및 홍보외교



## 제 1절 문화학술교류

문화외교는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간의 이해와 협력증대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인식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문화교류가 한나라의 대외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통상을 포함한 국가간 제반교류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나라는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바, 정부는 이를 위해 각국과의 문화협정체결, 문화공동위 개최 등을 통한 정부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우리문화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고 외국의 건전한 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계 각국과 상호 이해 및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1993년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발표된 신외교 5대 기조에 따라 외교의 다원화·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방면에서 문화외교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특히 우리의 정통성 계승을 위하여 중국내 임시정부청사 복원 노력을 전개하고, 상해 안장 임정요인과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하였으며, 불란서가 보존하고 있는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원칙에 대한 양국정부간 합의에 따라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 1. 문화협정체결 및 시행

### 가. 문화협정체결

우리나라는 1965년 이태리와 문화협정을 체결한 이래 1993년 12월 31일 현재 아시아지역 11개국, 유럽지역 15개국, 미주지역 21개국 및 중동아프리카지역 22개국등 총 69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학술·문화·언론·체육·청소년·관광 분야 등에서 체약국과의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1993년중에는 폴란드 및 핀란드와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10여개국과 문화협정체결 교섭을 진행중이다.

### 나. 문화공동위 운영

정부는 학술·문화·언론·체육분야등에서 상호 관심사와 구체적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2-3년마다 개최되는 문화공동위원회를 총 19개국과 설치, 현재 13개국과 운영하고 있다.

## 〈문화공동위원회 설치국 현황〉

		명 칭	발 족	최근개최현황
아	인 도	문화공동위	78.9. (뉴델리)	제6차, 93.9.10 (서 울)
	일 본	문화교류 실무협의회	83.12. (서 울)	제5차, 93.7.14-16 (서 울)
주	호 주	문화공동위	89.5. (서 울)	제2차, 92.5.11-12 (캔버라)
미 주	미 국	문화교류위	82.1.25-27 (워싱턴)	제2차, 84.12.5-6 (서 울)
구	프 랑 스	문화및 과학기술 공동 위	69.6.16 (파리)	제9차, 88.5.16-18 (파리)
	영 국	문화공동위 (상설혼성위)	84.2.2 (서 울)	제5차, 92.12.1-2 (서 울)
	독 일	문화공동위	75.3. (본)	제8차, 92.11.3-5 (서 울)
	이탈리아	상설공동위	70.11 (로마)	제6차, 93.8.5 (서 울)
	벨 기 애	상설혼성위	84.9.17-20 (브رات셀)	제3차, 89.2.13-17 (브랏셀)
	회 립	문화공동위	89.2.6-10 (아테네)	제1차, 89.2.6-10 (아테네)
	헝 가 리	문화공동위	90.11.5-6 (부다페스트)	제1차, 90.11.5-6 (부다페스트)
	러 시 아	문화공동위	93.10.26-29 (모스크바)	제1차, 93.10.26-29 (모스크바)
아 중 동	모 로 코	문화공동위	93.11.30- 12.2. (서 울)	제1차, 93.11.30-12.2 (서 울)

문화공동위를 개최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화교류 시행 계획서를 2-3년 단위로 작성, 서명하여 시행하는 나라로는 이집트, 가나, 터키, 요르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쿠웨이트등 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수단등 아중동 국가들과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학술·문화·체육·청소년분야의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문화협정 체결현황〉

지 역	체 결 국 가	비 고
아 주 (11국)	말레이지아, 대만, 호주,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파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 단교로 기능정지 상태
구 주 (15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터키, 스페인, 벨기에, 영국,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폴란드, 핀란드, 불가리아	
미주 (21국)	멕시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수리남,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카나다	
아·중동 (22국)	이란,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모로코, 요르단, 쿠웨이트, 모리타니,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시에라레온, 가봉, 케냐, 코트디브와르, 세네갈, 자이르, 라이베리아, 가나, 모리셔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 단교로 기능 정지 상태

## 2. 문화교류 협력

### 가. 각종 문화예술교류

1993년은 전년도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문화교류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

한·중 수교 1년을 맞는 해였던 1993년에는 이를 기념하여 1993년 9월 우리나라 국립예술단이 북경, 천진, 상해를 순회공연한 것을 비롯 중국과는 다방면에 걸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3년 9월 26일 한승주 외무장관이 참석한 뉴욕 링컨센터 개막식을 필두로 미국내 최초의 대규모 한국문화소개행사인 한국축제(Festival of Korea)가 아시아협회(Asia Society) 주관으로 시카고, 워싱턴 D.C. 등 국내 7개도시에서 일제히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우리와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내에서 우리문화와 민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8월까지 연속적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1993년 10월에는 최근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문화주간을 맞아 국립예술단이 약 보름간 순회 공연을 하므로써, 대양주지역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교민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1993년 12월에는 한·베트남 수교 1주년을 맞아 유수한 우리 전통예술단이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순회 공연을 하고, 이 공연이 대성황을 이룸으로써 오랜 단절을 겪었던 양국관계를 돋독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나.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정부는 해외의 유수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해외박물관내 한국실 독립설치 사업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립한국실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박물관으로는 보스턴박물관, 라성 카운티박물관, Newark 박물관, 상향 동양예술박물관, 시애틀 예술박물관, 비엔나 민속박물관, 체코 Naprsek 박물관등이 있으며 1992년 11월 영국내 2대 박물관의 하나인 빅토리아 알버트박물관내 한국실이 설치되어 5세기-20세기에 이르는 한국예술품 6백여점을 상설 전시하게 되었다.

한편 대영박물관은 한국실 설치를 위한 계약을 우리측과 체결하여 98년중 동 박물관내 독립한국관이 개관될 예정이며 그외에도 우리나라를 불란서 Guimet 국립동양박물관, 미국 Peabody 박물관, 뉴욕 Metropolitan 박물관 등 세계 유수박물관내 독립한국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다. 문화원을 통한 문화교류

정부는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경, 뉴욕, 라성 및 파리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문화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7개국에서 문화원을 설치하여 도서대출, 세미나 개최, 영화상영, 어학교습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문화원	주 소	시 설	개원일자
동 경	5F, Sunshine Building, 60 Higashi Ikebukuro 3-1-1, Toshima-ku, Tokyo	전시실 어학실 강의실	1979. 5. 10
뉴욕	460 Park Avenue(6th Floor) New York, NY 10022	자료실 도서실 영사실	1979. 12. 5
라 성	550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90036	사랑방 세미나실	1980. 4. 11
파리	2, Avenue d'Iena, 75116 Paris	회의실 사무실	1980. 12. 16

#### 라. 해외문화재 보존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는 외래문화의 범람에 밀려 고루한 풍습으로 치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존·전승하여 민족공동체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역사 유적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관할권등 현실적 사정을 고려, 각 소재지국의 문화재로 지정, 영구히 보존 되도록 관련국과의 교섭등 외교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해외유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보관실태 및 반출경위 등을 파악한 다음 불법·무단 반출의 경우에는 환수를 적극 추진하되 정당한 수단과 경로를 통하여 해외에 유출되었음이 판명된 문화재는 자발적 기증 유도 및 매입 등에 의한 환수와 함께 해외 유수박물관의 한국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문화재의 공개 전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재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체결 교섭등 문화재관련 국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

써 우리문화재의 불법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불법유출 문화재의 원소유국 반환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계기로 상해 및 중경소재 임시정부 청사를 각각 중국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영구보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청사는 1993년 4월 복원 개관된 바 있으며, 중경 임시정부 청사는 중경시측과 복원에 관한 양국 협력사항이 1993년 12월 타결됨으로써 1995년 8월 광복 50주년을 기해 복원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인양요때 탈취된 외규장각도서는 1993년 9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방한시 양국 정상간에 우리측에 반환키로 원칙합의됨에 따라 구체적인 반환 방안에 관해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 마. 민간외교활동 지원

사회가 다양화되고 국제관계가 복잡해 질수록 외교무대의 주역(actor)도 다원화, 다층화되면서, 민간외교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상호 의존 심화와 다양화로 특징 지워지는 오늘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외교는 이제 민간외교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무부는 소관 민간외교단체들이 민간외교에 있어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학술연구, 출판 및 문화교류활동,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협조와 주요인사 예방주선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무부에서는 1993년중 세계한인 상공인총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하는등 12개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동아시아공동체연구협회등 6개 사회 단체의 등록을 접수하여 외무부 등록 민간외교단체의 숫자는 법인 80개(사단 법인 63, 재단법인 17), 사회단체 85개가 되었다.

한편 자율적인 민간외교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1994년부터는 사회단체 등록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고 단체설립 등록제는 신고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 3. 학술교류 협력

#### 가. 해외한국학 진흥

1887년 최초로 레닌그라드(현 페테르스부르크)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이후 약 100년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온 해외한국학은 1992년 1월 1일 한국국제 교류재단이 외무부 산하기관으로 발족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관련 주요활동으로는 1) 해외의 한국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원, 2) 해외대학, 학술연구단체, 도서관, 박물관등에 한국과 혹은 한국관련 강좌 개설 지원, 3) 해외한국연구학자에 대한 방한연구 Fellowship 수여, 4) 한국연구 Workshop 개최, 5)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순회강연회 개최, 6) 한국관련 국제학술회의 주관 및 지원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3년도 부터는 지역별로 거점연구대학을 선정, 중점지원함으로써 해외한국학 연구의 내실화와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는 미주지역을 각지역별로 하바드대, 콜럼비아대, 버클리대, 하와이대 등을 중점지원대학으로 선정,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1993.4.16-20간 제 16차 구주한국학술회의 (Association for Korea Studies in Europe : AKSE)가 전세계 22개국 108명의 한국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로 인문과학 중심의 한국학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는 바, 특히 동 학회에서는 유럽통합에 즈음하

여, 유럽내 한국학 기반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써 AKSE의 육성, 발전방안이 토의 되었다. 동 학회는 2년마다 유럽지역에서 개최되며 95년 체코 찰스대학에서 제 17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해외한국연구 지원은 미주 및 구주지역 일변도에서 탈피, 중국을 비롯한 아주지역, 러시아 및 동구지역의 구사회주의권 등지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3년도 지원실적
- 한국학 : 12개국 52개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에 약 605만불 지원
- 한국연구 Fellowship : 24개국 68명 초청
- 한국어 Fellowship : 17개국 61명 초청

#### 나. 한국관 시정사업

1975년 국무총리의 외국교과서 왜곡시정 지시로 시작된 한국관 시정사업은 1979년 1월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정부관계부처와 민간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무부에서는 외교교섭(문화협정, 문화공동위 포함)을 통한 시정, 재외공관을 통한 자료수집, 시정자료 해외배포, 동해 및 독도표기 오류시정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립국가연합, 동구권등 구사회주의 국가 및 중국 등지에서의 오류시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다. 장학생 교류

정부는 외국과의 학술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및 문화협정 시행계획에 의거 1967년부터 매년 우수한 외국 학생을 정부장학생으로 초청하여 국내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바, 1993년도에

는 11개국 16명을 초청하였으며 1993년말까지 누계로 66개국에서 293명을 초청 하였다.

#### 4. 청소년교류 협력

##### 가. 개 관

우리사회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국제청소년 교류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교류는 청소년들에게 선진문물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올바로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국제친선과 우의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접한 일본·중국등과의 청소년 교류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나. 한·일 청소년 및 청년교류

한·일 양국정부는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상호 교류하여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일이 미래지향적인 양국 협력관계의 정립에 바람직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청소년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양국간 청소년교류는 1971년 8월 한·일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1972년부터 매년 청소년 20명의 교환방문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교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양국 정상간 합의나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외무부, 교육부 및 체육청소년부와 일본의 외무성과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등 관계부처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특히 1993년도부터는 일본정부가 우리측 청년을 매년 100명씩 초청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60명의 일본청년을 초청하고 있으며, 그 첫사업으로 1993.11.23-12.2간 일본청년 대표단 60명이 방한한 바 있다.

#### 〈한·일 정부간 청소년교류 현황〉

사업명	시행기관(근거)	사업내용
한·일 외무부간 청소년 교류	양국 외무부(71.8. 한·일 각료회담 합의)	매년20명의 대학생대표단을 상호 초청 교류(9박10일)
한·일 청년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측 : 국제협력단(JICA)</li> <li>• 우리측 : 국제교류재단 (일측이 「21세기 우정의 계획」에 의거 87-91간 한국청년 500명을 초청 한데 이어 92.1 「미야자와」수상 방한시 정상회담에서 동 사업 연장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측 : '92-'96간 매년 100명씩 총 500명의 한국 청년을 30일간 초청</li> <li>• 우리측 : 93년부터 5년간 총 300명의 일본 청소년을 매회 10일간 60명씩 초청(일측 초청사업에 대한 대응사업임) ※교사, 근로청소년, 대학생, 청년지도자 등으로 방문단 구성</li> </ul>
문화체육부, 일본 총무청 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측 : 총무청 청소년 대책본부</li> <li>• 우리측 : 문화체육부(84년도 양 부처간 청소년교류사업계획)</li> </ul>	매년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20명을 방한 초청하고 30명을 일본에 파견
학술진흥재단, 일·한문화교류 기금 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측 : 일한문화교류 기금</li> <li>• 우리측 : 한국학술진흥재단 ('88 한·일 정상회담 합의)</li> </ul>	89년부터 양국간 교육·학술·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매년 대학생 90명, 교사 60명씩 상호 단기 교류

#### 다. 동북아지역 역내 청소년교류

소련의 몰락, 중국의 개방, 한·중 수교, 지역간 무역블럭화 추세등으로 새로운 동북아 협력 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1993.2.22-3.5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러·중·일 동북아 4개국 청소년교류대회는 향후 역대 국가간 단결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상징적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대회에는 한국, 러시아(극동지역), 중국(동북 3성), 일본의 동북아 지역 4개국 대학생 각 10명씩이 함께 초청되어 동북아시아지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움과 현장실습, 민박등을 통하여 상호간 이해와 우의를 증진한 바, 동 사업의 의의를 감안 매년 참가국들이 윤번제로 동 대회를 주관, 개최할 예정이다. 1994년도에는 우리 외무부가 동 사업을 주관할 예정이다.

### 5. 기타 협력

#### 가. 해외체육교류 협력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체육교류증진을 위해 지난 1982년 이래 매년 주요 체육교류협력 대상국들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 및 지도자파견, 외국코치 방한 초청연수등 해외체육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93년에는 아중동,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40여개국에 체육지원사업을 전개한 바, 동 사업은 대후진국 외교적 성과 거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각국과의 체육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간 및 올림픽위원회 간의 노력은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바, 1993년 12월 31일 현재 총 39개국과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오고 있다.

#### 나. 관광진흥 지원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엑스포' 및 '1994년 한국방문의 해' 등을 계기로, 2000년대 외래관광객 700 만명 유치, 관광외화수입 100억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재외공관에 관광진흥 대책회의를 운영토록 하는등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과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지방자치제 실시와 아울러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체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체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및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83개 시·도·군·구가 27개국 15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여는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제 2절 대내외 홍보강화

### 1. 선진 한국상의 대외적 인식 확산

정부는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해외 각국민의 이해증진과 우리나라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대외인식 확산을 위하여 활발한 대외 홍보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냉전종식후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을 통하여 크게 신장된 국력과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진전된 민주화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발전상뿐만 아니라 역사·과학기술·사회·문화·예술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대외홍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더이상 국제체제의 수혜자 혹은 피동적인 객체가 아니며, 세계 평화애호국들과 국제평화·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환경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자임을 부각시켜 애써 왔다. 대외홍보를 통해 형성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과 선진적인 이미지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선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대외홍보활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를 취재하는 외국 언론매체들에게 외교정책 브리핑 및 설명회 개최, 본부간부 면담주선등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취재활동을

하는 주한 외신기자단을 비롯한 외국의 취재기자들이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자국이나 전세계에 올바로 소개하도록 우리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각종 취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언론인들은 선진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된 혹은 편향적인 정보원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언론인들을 방한 초청하여 우리의 실상을 직접 보고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1985년부터 주로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 및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매년 평균 10명 가량의 중견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를 올바로 소개함으로써,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홍보

정부는 또한 세계각국에 주재하는 141개 재외공관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재국의 일반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나 현실상을 올바로 소개하여 왔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주재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언론 설명회 개최나 뉴스자료등 간행물 제작 및 배포등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학등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및 주재국 주요인사 면담등을 통하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경, 뉴욕,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파리에 소재한 한국문화원 외에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등 주요국가 소재 34개 재외공관에 해외홍보를 전담하는 해외공보관을 두고 우리나라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3. 범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외교업무 수행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에 바탕을 둔 범국민적 외교를 수행한다는 방침아래,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여론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수행 중인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종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기능을 강화하여 외교사안에 관한 여론동향 파악에 힘쓰는 한편, 주요 외교현안을 설명 하는 “외교문제해설”을 월 2-3회 발간하여 학계, 정계, 경제계등 각분야의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하는등 외교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여론수렴 및 이해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메스콤의 발달로 지방주민들의 국제문제와 외교 사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교안보연구원과 전직 대사들로 구성된 외교협회는 지방대학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청 과견 국제자문 대사가 지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제문제 설명회를 갖는등 외교업무 홍보활동은 지방차원에까지 확대되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